

“유달해수욕장 재개장해주오”

안전상 이유로 지난해 폐쇄된 목포 유달해수욕장 재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시는 모래 유실로 수심이 깊어져 익사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해수욕장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유달해수욕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유달해수욕장 재개장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상인들은 “유달해수욕장은 유달산과 응머리 야경, 각종 선박들을 구경할 수 있는 원도심 유일의 피서지로

목포시 “익사사고 위험” 지난해 폐쇄 인근 상인들 “영업 타격” 대책 호소

안전시설을 보완해 재개장하면 하당 평화광장에 버금가는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해수욕장을 폐쇄하고도 인근에 상가를 신축한 뒤 상인들에게 임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20억원을 들여 지난 2004년부터 유달 유원지 조성사업을 벌이

면서 인근에 상가 건물을 신축, 지난해 5월 완공했다.

시는 1층 매점, 2층 카페와 레스토랑, 3층 찻집과 식당 등을 임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입찰에 나섰으나 6차례 유찰 끝에 올 3월 가까스로 임대

를 마쳤다. 이때문에 상인들은 “해수욕장 폐

장 여파로 영업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상인 김모(60)씨는 “해수욕장 폐쇄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시내권에 해수욕장이 없는 만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유달해수욕장을 재개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인근 외달도에 해수욕장이 있어 유달해수욕장 재개장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동본원사 목포별원 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전남도에 통보...철거 논란 끝

보존이나 철거냐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목포시 무안동 소재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전남도는 28일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

는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 등록으로 동본원사 목포별원은 철거 대신 보존으로 가다가 잡혔다.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은 1930년 대 초반에 지어진 일본식 불교사

원으로 국내에서는 특이하게 교회(현 중앙교회)로 전용된 이색적인 건물이다.

석조외관 등 전반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암울했던 시대에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활용됐던 역사적 건물이기도 하다.

인근 주민들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철거한 뒤 주차장을 세우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목포문화재단 등은 보존을 주장해 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확 바뀐 무안읍 시가지

334억원 들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
테마 거리·황토 클리닉 타운 조성



무안군이 최근 읍 시가지에 30여개의 LED 조명등을 설치해 새로운 야간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무안읍이 쾌적한 시가지로 거듭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04년 7월 행정자치부, 전남도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08년 말까지 무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100억을 비롯해 334억원이 투입돼 ▲양파 한우와 갯벌 나지가 어우러진 테마거리 ▲중심상가 활성화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황토 클리닉 타운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이미 갯벌 나지거리 조성과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완료됐으며 주차장 3개소도 완공됐다. 군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안을 뚫아거리에서 불마다리까지 350m 구간에 20m 간격으로 30여개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을 설치했다.

앞으로 군은 읍 사무소 앞에 이벤트광장을 만들고 황토 클리닉타운 내에 황토박물관과 주민 휴식공간, 농산물 전시판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무안군, 서울 마포구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열어

무안군이 서울 마포구 당인리 발전소 옆 광장에 양파·마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다. 29일 문을 여는 직거래 장터는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 협조를 얻어 무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경순)가 주관한다. 이번 장터는 환경면 평산리 일대에서 생산된 양파 10t과 마늘 4t을 판매하게 된다.

군은 직거래 장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을 경우 소비자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 양파김치 시식코너도 마련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서해해양경찰청 관용차 하이브리드카 도입키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형)이 유류 소모와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를 관용차로 도입, 오는 29일부터 운행한다.

서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시범 운행용 차량이어서 일반 동종 차량 보다 1천여만 원 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 오염 방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판단돼 도입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목포·진도권 해역

기상 표지 시스템 구축

목포와 진도 해역에 기상 신호 표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 진도권의 해양 기상 정보를 항해하는 선박이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상 신호 표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36억 원이 투입돼 항만과 연안 해역 주요 지점 15군데에 시스템이 설치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은 자전거 섬”

증도 갯벌 생태관에서 선포식
3년간 2만여대 각 섬에 비치

1천4개의 아름다운 섬과 깨끗한 해수욕장, 광활한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신안군이 “자전거 섬”으로 선포된다.

신안군은 30일 증도면 갯벌 생태전시관 무대에서 자전거 섬 선포식을 갖는다.

“건강을 사고, 두 바퀴로 가는 행복”이란 주제로 열린 선포식에는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선포식 참석자 300명이 자전거를 타고 우전해수욕장 입구까지 700m를 달리고 전남대학교 묘기단의 자전거 시범이 펼쳐진다. 또 자전거 사탕 전국연합회원 200명이 신안 해저 보물선 발굴현장까지 26km의 섬 일주 ‘자전거 대행진’을 벌인다.

군은 앞으로 3년간 2만1천여대의 자전거를 각 섬에 비치해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 다음달까지 입자 대공해수욕장과 하트 모양으로 알려진 비금 하남해수욕장에 각각 300대의 자전거를 비치할 예정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한중일 주니어 국제대회

2009년 8월 목포서 개최

목포시가 2009년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 국제대회’를 유치했다. 2009년 8월 개최되는 한·중·일 주니어 국제대회는 축구와 배구, 육상 등 11개 종목에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유치한 ‘제 11회 한·일 하계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도 오는 8월 16일부터 7일간 유달경기장에서 열린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무안 햇망파 출하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햇망파를 손질하고 있다. 무안산 햇망파는 7kg당 3천원선에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된다. /위탁량기자 jrwi@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수	653-8444	목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안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영광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북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제주도바다
외, 물회, 구이
문의: 062-3308-0807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새롭게 단장한 신안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000부터 (17,000부터 한여름)
문의: 062-228-8000, 062-228-4711-2